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생활만족도 비교 및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김 선 미

유 미 현

반송중학교

아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영재학급 중학생 104명과 중학교 일반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이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5$). 영재학생은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학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간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성별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둘째,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5$).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단과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셋째, 일반학생과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영재학생, 일반학생, 시간관리 행동, 생활만족도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새로운 교육 혁신 정책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2000년에는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안’에서는 전체 학생의 0.59% 정도에게 제공되던 영재교육을

2012년까지 초·중등학생의 1%까지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영재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이재호, 2012).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영재교육 대상자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에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시기를 포함한 청소년기는 삶의 목표를 계획하여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학업 및 발달과업의 성취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남경애, 고선강, 2008).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면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나 자아실현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09)의 생활시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수면, 식사, 개인유지시간 등의 필수적인 활동에 10시간 58분, 학습, 이동 등의 의무적인 활동에 7시간 24분, 미디어 이용, 취미활동, 친구와의 교제 등의 여가활동에 3시간 46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학생뿐 아니라 영재학생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재교육기관에 선발되어 교육받는 영재아들은 학교의 학습뿐만 아니라 과제의 병행,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시간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영재들은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시간 이외에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 요구되며 시간을 관리하려는 경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실패하여도 피드백을 통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시간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시간관리 능력은 짧은 시간에 학습될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과 반복 숙달을 통해 길러지는 태도이자 능력이므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정호순, 2009).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즉, 시간관리가 바로 자기관리의 시작인 것이다. ‘인생의 성공은 시간관리 능력에 있다’라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성취를 이룰 수도 못 이룰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하루의 일과를 짜임새 있게 계획하여 생활하고 있다. 남들보다 적은 양의 시간을 들여 보다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시간관리는 모든 인간발달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한다(박은정, 김외숙, 2008). 이와 같이 중학생 시기의 시간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박경애, 김택호, 1994).

시간관리 연구자들에 의하면 시간관리는 지능보다도 학업성취를 더 많이 예언하며 자기 효능감 및 목표설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Britton & Tesser, 1991). 조선미(2011)에 의하면 시간관리는 영재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자기조절학습전략 중 하나이며, 한순미(2005)에 의하면 시간관리를 포함한 행동조절전략은 지식사회에서 영재들이 지녀야 할 지식과 전략이라고 하였다.

시간관리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들의 시간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시간관리 능력은 인지적 결과뿐 아니라 정의적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데 시간관리를 잘 하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자신의 수행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학습과 삶에 만족했다고 한다(Macan et al., 1990). 학업에 실패한 학생들의 경우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Schmelzer et al., 1987)와 시간관리 검사 점수가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Trueman & Hartley, 1996) 등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연구로는 청소년의 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이원휘(2000), 박은정과 김외숙(2008), 박현수(2008)의 연구 등이 있으며 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의 시간관리 능력이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오현진(2006)의 연구와 고등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이 학업성취도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남경애와 고선강(2008)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볼 때 시간관리 능력은 청소년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학생의 시간관리에 대한 연구에 비해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관리 능력 향상 등의 시간관리 관련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재들이 학업성취 및 자기생활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관리 능력 향상 전략들을 활용하여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재학생의 경우 학교수업 뿐만 아니라 영재수업과 부수적인 학습으로 인해 시간부족 경험을 겪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관리와 관련된 생활만족도 연구에 의하면 시간관리가 시간갈등을 완화시켜주므로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성유진, 1994; 윤희리, 1996; 최수임, 1993). 윤용옥(2007)의 연구에 의하면 시간관리는 생활만족도 전체 및 대부분의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간관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영재학생들의 시간관리 행동이 어떠한지 조사하고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한편 과학영재의 성별에 따른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연구한 김은정(2007)에 의하면 여학생 영재가 남학생 영재와 여러 가지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의적 특성 중 자기조절학습 능력에서의 자원과 시간관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지적, 정의적 특성 관련하여 과학영재 학생의 성차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김명숙 외(2003), 조은부와 백성혜(2006), 한기순 외(2002) 등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영재 학생의 정의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비해 성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에서 남학생, 여학생 영재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또 영재학생과 일

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교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중 6개 중학교의 영재학급 학생 104명, 동일한 지역의 1개 중학교의 일반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학교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자기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원 및 성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구성

구분	영재학생	일반학생	계
남	68	113	181
여	36	90	126
계	104	203	

2. 측정도구

가. 시간관리 행동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리 행동 측정도구로 박은정(2007), 김경아(2004), 홍성임(2004)이 개발한 시간관리 척도 검사지를 재구성한 남경애(2008)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시간관리 행동의 7개 하위영역으로는 목표설정, 시간관리 계획, 시간관리 순서, 시간계획 수행, 기록습관, 시간관리 평가, 시간관리 만족이 있으며, Likert 5단계 척도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하위영역에 따른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시간관리 행동의 하위영역 구성

시간관리 행동의 영역	문항 수	검사지 문항번호
목표설정	3	10, 16, 21
시간관리 계획	4	1, 4, 8, 14
시간관리 순서	3	2, 3, 13
시간계획 수행	6	5, 12, 15, 18, 19, 20
기록습관	2	11, 22
시간관리 평가	2	6, 9
시간관리 만족	2	7, 17
합 계	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관리 행동 척도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계수는 .9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925~.938로 비교적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표 3> 시간관리 행동 검사지에 대한 내적신뢰도 계수

시간관리 행동의 하위영역	문항 수	Cronbach's α
목표설정	3	.932
시간관리 계획	4	.925
시간관리 순서	3	.928
시간계획 수행	6	.933
기록습관	2	.937
시간관리 평가	2	.929
시간관리 만족	2	.938
시간관리 행동(전체)	22	.919

나.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결정요인에 관한 김미경(2001)의 연구와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한곽수란(2007)을 재구성한 남경애(2008)의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은 가정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자기만족도의 3가지이며, Likert 5단계 척도 총 23문항으로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생활만족도 하위영역 구성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	문항 수	검사지 문항번호
가정생활 만족도	6	1,2,3,4,5,6
학교생활 만족도	9	7,8,9,10,11,12,13,14,15
자기만족도	8	16,17,18,19,20,21,22,23
합 계	23	

본 연구에서의 사용한 생활만족도 척도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19로 높게 나타났고, 생활만족도 하위영역별 요인을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이 .880~.931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였으며 생활만족도의 하위 요인별 합산점수가 클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생활만족도 검사지에 대한 내적신뢰도 계수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	문항 수	Cronbach's α
가정생활 만족도	6	.931
학교생활 만족도	9	.880
자기만족도	8	.896
생활만족도(전체)	23	.819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회수된 검사지는 SPSS Windows ver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채점과 부호화 과정을 거쳐 통계 처리하였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검사 결과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 집단별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생활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가.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비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별 비교

영역	영재학생(N=104)		일반학생(N=203)		<i>t</i>	<i>p</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관리 행동(전체)	3.25	.60	2.86	.74	4.669	.000***
목표설정	3.44	.73	2.88	.88	5.898	.000***
시간관리 계획	3.19	.74	2.78	.98	3.758	.000***
시간관리 순서	3.44	.79	3.07	.93	3.617	.000***
시간계획 수행	3.23	.57	2.96	.63	3.654	.000***
기록습관	3.22	1.00	2.69	1.11	4.187	.000***
시간관리 평가	3.03	.84	2.55	1.07	4.003	.000***
시간관리 만족	3.14	.79	2.83	.97	2.832	.003**

p*<.01, *p*<.001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p*<.05)를 나타내었다.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3.25)이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보다(2.86)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관리 행동이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동일, 박경애, 김택호, 1995; 이원휘, 2000; 정금미, 2003)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대목이다.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의 하위영역에서는 목표설정(3.44)과 시간관리 순서(3.44)가 가장 높았고, 시간관리 평가(3.03)가 가장 낮았다. 영재학생은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시간관리를 계획순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신의 시간관리를 자신이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상

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의 하위영역에서는 시간관리 순서(3.07)가 가장 높았고, 시간관리 평가(2.55)가 가장 낮았다. 영재학생에 비해 일반학생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자신이 시간을 계획하여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높은 평균점수를 얻어 어느 정도의 계획과 수행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시간관리 행동 중에서 시간관리 순서가 가장 높았다는 남경애와 고선강(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목표설정($t=5.898, p<.001$), 시간관리 계획($t=3.758, p<.001$), 시간관리 순서($t=3.617, p<.001$), 시간계획 수행($t=3.654, p<.001$), 기록습관($t=4.187, p<.001$), 시간관리 평가($t=4.003, p<.001$)의 하위영역에서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며 순서를 정하여 잘 수행하며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시간관리 만족($t=2.832, p<.01$)의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미숙, 윤초희, 조석희(2005)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상위 인지능력이 우수하고 상위인지전략의 하위영역 중 시간관리 부분에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관리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평균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고차원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 비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별 비교

영역	영재학생(N=104)				일반학생(N=203)							
	평균(표준편차)		t	p	평균(표준편차)		t	p				
	남(N=68)	여(N=36)			남(N=113)	여(N=90)						
시간관리 행동(전체)	3.22	.65	3.32	.51	-862	.391	2.74	.80	3.03	.63	-2.828	.005**
목표설정	3.45	.73	3.42	.73	.195	.846	2.86	.94	2.91	.80	-.375	.708
시간관리 계획	3.14	.80	3.29	.60	-1.014	.313	2.58	1.01	3.04	.88	-3.482	.001**
시간관리 순서	3.31	.81	3.69	.69	-2.482	.015*	2.96	.96	3.23	.87	-2.071	.040*
시간계획 수행	3.21	.62	3.25	.49	-.331	.741	2.85	.70	3.12	.51	-3.022	.003**
기록습관	3.11	1.02	3.42	.95	-1.531	.130	2.42	1.13	3.04	.99	-4.107	.000***
시간관리 평가	2.99	.87	3.13	.80	-.823	.413	2.40	1.08	2.75	1.04	-2.364	.019*
시간관리 만족	3.24	.87	2.97	.57	1.628	.107	2.82	1.06	2.86	.85	-.273	.785

* $p<.05$, ** $p<.01$, *** $p<.001$

영재학생은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 영역 대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학생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영재학생은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 중 시간관리 순서($t = -2.482, p < .01$)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하위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일반학생은 시간관리 행동 전체($t = -2.828, p < .01$), 시간관리 계획($t = -3.482, p < .01$), 시간관리 순서($t = -2.071, p < .05$), 시간관리 수행($t = -3.022, p < .01$), 기록습관($t = -4.107, p < .001$), 시간관리 평가($t = -2.364,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목표설정, 시간관리 만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능력 차이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김외숙, Geistfeld, 2005; 남경애, 고선강, 2008; 서인주, 두경자, 2007; 오현진, 2006; 이원휘, 2000; 채화영, 2005)에서 여성의 시간관리 행동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학생은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영재학생의 경우 시간관리 순서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현진(2009)의 연구와 남경애(2008)의 연구에서 순서성 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일의 순서를 중요시 여겨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순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시간관리 행동이 집단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집단-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 이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영역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시간관리 행동 (전체)	집단	9.838	1	9.838	20.699	.000***
	성별	2.295	1	2.295	4.829	.029**
	집단*성별	.515	1	.515	1.083	.299
	오차	144.515	303	.475		
	합계	2907.570	307			
목표설정	집단	19.453	1	19.453	27.941	.000***
	성별	.000	1	.000	.000	.990
	집단*성별	.060	1	.060	.087	.769
	오차	20.948	303	.696		
	합계	3120.778	307			
시간관리 계획	집단	10.583	1	10.583	13.395	.000***
	성별	5.628	1	5.628	7.123	.008**
	집단*성별	1.540	1	1.540	1.950	.164
	오차	239.389	303	.790		
	합계	2881.063	307			
시간관리 순서	집단	10.801	1	10.801	14.046	.000***
	성별	6.272	1	6.272	8.157	.005**
	집단*성별	.258	1	.258	.335	.563
	오차	232.992	303	.769		
	합계	3385.556	307			

시간계획 수행	집단	4.129	1	4.129	11.086	.001**
	성별	1.404	1	1.404	3.770	.053
	집단*성별	.793	1	.793	2.130	.145
	오차	112.845	303	.372		
	합계	2980.833	307			
기록습관	집단	18.486	1	18.486	16.899	.000***
	성별	13.243	1	13.243	12.106	.001**
	집단*성별	1.409	1	1.409	1.288	.257
	오차	331.464	303	1.094		
	합계	2899.000	307			
시간관리 평가	집단	15.167	1	15.167	15.274	.000***
	성별	3.695	1	3.695	3.722	.055
	집단*성별	.647	1	.647	.651	.420
	오차	300.866	303	.993		
	합계	2583.500	307			
시간관리 만족	집단	4.671	1	4.671	5.605	.019*
	성별	.935	1	.935	1.122	.290
	집단*성별	1.296	1	1.296	1.556	.213
	오차	252.490	303	.833		
	합계	2911.000	307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시간관리 행동 전체와 하위영역에서 목표설정, 시간관리 계획, 시간관리 순서, 시간계획 수행, 기록습관, 시간관리 평가, 시간관리 만족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존재하였다. 시간관리 행동 전체와 시간관리 계획, 시간관리 순서, 기록습관의 하위영역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에 관계없이 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이 남학생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관리 행동 전체와 하위 전 영역에서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두 집단 모두 시간관리 행동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동일한 경향성으로 인해 집단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

가.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의 비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 비교

영역	영재학생(N=104)		일반학생(N=203)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만족도(전체)	3.76	.63	3.56	.64	2.594	.010*
가정생활만족도	4.16	.73	3.99	.81	1.745	.66
학교생활만족도	3.62	.70	3.48	.71	1.631	.104
자기만족도	3.61	.72	3.32	.74	3.266	.001**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영재학생의 생활만족도 전체 평균(3.76)이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p < .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영재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방수진(2012)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 4개 하위영역 중에서는 자기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나타내었다.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영재학생들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이초록(2011)의 연구결과로부터 생활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반학생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고 학습저하의 요인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생활만족도 하위영역 중 가정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영재학급 학생은 일반학급 학생에 비하여 환경, 학업, 교사, 교우와의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조성신, 유미현, 여상인(2011)의 연구결과와는 약간 다른 대목이다.

영재학생의 생활만족도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정생활만족도(4.1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만족도(3.6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정생활만족도(3.9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만족도(3.3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가정생활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경애(2008)의 연구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평균 4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비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하위영역별 비교

영역	영재학생(N=104)				일반학생(N=203)							
	평균(표준편차)		<i>t</i>	<i>p</i>	평균(표준편차)		<i>t</i>	<i>p</i>				
	남(N=68)	여(N=36)			남(N=113)	여(N=90)						
생활만족도(전체)	3.74	.61	3.79	.11	-.321	.749	3.52	.67	3.61	.59	-.952	.342
가정생활만족도	4.09	.76	4.29	.67	-1.37	.175	3.92	.83	4.08	.78	-1.454	.147
학교생활만족도	3.65	.67	3.55	.77	.657	.514	3.45	.77	3.53	.62	-.812	.418
자기만족도	3.58	.68	3.67	.80	-.561	.577	3.31	.80	3.34	.66	-.291	.771

<표 10>에 의하면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생활만족도 전체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3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급,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내에서 성별에 따른 학교 생활만족도는 모두 평균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성신 외(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생활만족도 전체와 생활만족도 하위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한편 생활만족도에 관해 집단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집단-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이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영역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생활만족도 (전체)	집단	2.599	1	2.599	6.345	.012*
	성별	.239	1	.239	.593	.442
	집단*성별	.020	1	.020	.050	.823
	오차	122.219	303	.403		
	합계	4161.601	307			
가정생활만족도	집단	2.321	1	2.321	3.790	.052
	성별	2.132	1	2.132	3.480	.063
	집단*성별	.017	1	.017	.027	.869
	오차	185.618	303	.613		
	합계	5225.333	307			
학교생활만족도	집단	.911	1	.911	1.819	.178
	성별	.013	1	.013	.026	.873
	집단*성별	.466	1	.466	.931	.335
	오차	151.725	303	.501		
	합계	3970.099	307			
자기만족도	집단	5.678	1	5.678	10.549	.001**
	성별	.192	1	.192	.357	.550
	집단*성별	.069	1	.069	.128	.720
	오차	163.083	303	.538		
	합계	3760.953	307			

* $p < .05$, ** $p < .01$

<표 11>에 의하면 생활만족도 전체와 생활만족도 하위영역 중 자기만족도의 경우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존재하였다($p < .05$). 그러나 가정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와 집단 간의 주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p > .05$). 생활만족도 전체와 4개 하위영역에서 성별의 주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p > .05$). 또한 생활만족도 전체와 하위 전 영역에서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p > .05$).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학생과 영재학생은 생활만족도는 성별과 무관하며 서로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중학교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가. 일반학생과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일반학생 및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두 변인간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여 알아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2> 일반학생의 시간관리행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N=203)

시간관리 행동전체	하위영역							
	목표설정	시간관리 계획	시간관리 순서	시간계획 수행	기록습관	시간관리 평가	시간관리 만족	
생활만족도 전체	.415*** (.000)	.348*** (.000)	.328*** (.000)	.382*** (.000)	.325*** (.000)	.291*** (.000)	.346*** (.000)	.333*** (.000)
가정생활 만족도	.252*** (.000)	.240** (.001)	.205** (.003)	.252*** (.000)	.191* (.006)	.207** (.003)	.187** (.008)	.154* (.029)
학교생활 만족도	.370*** (.000)	.320*** (.000)	.301*** (.000)	.351*** (.000)	.283*** (.000)	.246*** (.000)	.318*** (.000)	.308*** (.000)
자기 만족도	.421*** (.000)	.318*** (.000)	.320*** (.000)	.361*** (.000)	.343*** (.000)	.285*** (.000)	.361*** (.000)	.366*** (.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N=104)

시간관리 행동전체	하위영역							
	목표설정	시간관리 계획	시간관리 순서	시간계획 수행	기록습관	시간관리 평가	시간관리 만족	
생활만족도 전체	.540*** (.000)	.059 (.550)	.367*** (.000)	.477*** (.000)	.351*** (.000)	.343*** (.000)	.376*** (.000)	.234** (.017)
가정생활 만족도	.317** (.001)	.025 (.800)	.185 (.060)	.341*** (.000)	.472*** (.000)	.135 (.172)	.178 (.071)	.432*** (.000)
학교생활 만족도	.513*** (.000)	.023 (.817)	.367*** (.000)	.446*** (.000)	.526*** (.000)	.352*** (.000)	.366*** (.000)	.433*** (.000)
자기만족도	.555*** (.000)	.105 (.289)	.380*** (.000)	.451*** (.000)	.522*** (.000)	.375*** (.000)	.410*** (.000)	.432*** (.000)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154~.421)를 나타내고 있다. 시간관리 행동 전체와 생활만족도 전체, 시간관리 행동과 자기만족도는 상관계수가 .04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경애와 고선강(2008)의 연구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용옥(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시간관리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영재학생의 경우에도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는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023 \sim .555$)를 나타내고 있다.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과 생활만족도 전체와의 관계는 시간관리 계획($r=.477$)이 제일 높고, 시간관리 평가($r=.376$), 시간관리 계획($r=.367$), 시간계획 수행($r=.351$), 기록습관($r=.343$), 시간관리 만족($r=.2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학생과는 달리 영재학생의 경우 목표설정($r=.059$)이 생활만족도 전체 및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표설정과 관련된 설문지의 문항은 ‘나는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 ‘나는 한 학기 전체를 위한 목표를 세운다.’, ‘나는 미래를 위한 목표를 차분히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 등이다. 이러한 문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자신의 미래 인생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영재학생들의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영재학생들의 시간관리 행동 전체와 생활만족도 하위영역 사이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며 자기만족도($r=.555$)가 제일 높고, 학교생활만족도($r=.513$), 가정생활만족도($r=.3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도와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간의 상관계수를 조사한 결과 시간계획 수행($r=.472$), 시간관리 만족($r=.432$)과는 상관계수 .4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교생활만족도와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간의 상관계수를 조사한 결과 시간계획 수행($r=.526$), 시간관리 순서($r=.446$), 시간관리 만족($r=.433$)과는 상관계수 .4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만족도와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간의 상관계수를 조사한 결과 시간계획 수행($r=.522$), 시간관리 순서($r=.451$), 시간관리 만족($r=.432$), 시간관리 평가($r=.410$)와의 상관계수 .4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영재학생들의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 중 어떠한 영역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들의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시간관리 행동의 하위영역 중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4개의 하위영역 시간관리 계획, 시간관리 순서, 시간관리 수행, 시간관리 만족 중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큰 순서대로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생활만족도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의 투입순서는 시간관리 계획, 시간관리 순서, 시간계획 수행, 시간관리 만족의 순으로 하였다. 1단계는 시간관리 계획을 투입하였고, 2단계는 시간관리 순서를 추가로 투입시켰고, 3단계는 시간계획 수행을 투입하여 모형을 만들었으며, 4단계에서 시간관리 만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이 생활만족도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하위영역이 생활만족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β				
1	(상수)	2.760	.256	10.761	.000***	15.904***	.135
	시간관리 계획	.312	.078	.367	3.988		
2	(상수)	2.421	.262	9.237	.000***	14.951***	.228
	시간관리 계획	.036	.108	.042	.332		
	시간관리 순서	.355	.101	.446	3.499		
3	(상수)	1.770	.301	5.887	.000***	16.037***	.325
	시간관리 계획	-.173	.116	-.204	-1.495		
	시간관리 순서	.273	.098	.344	2.796		
	시간계획 수행	.496	.131	.452	3.779		
4	(상수)	1.681	.299	5.623	.000***	13.473***	.352
	시간관리 계획	-.213	.116	-.250	-1.836		
	시간관리 순서	.276	.096	.346	2.862		
	시간계획 수행	.399	.138	.364	2.901		
	시간관리 만족	.165	.080	.207	2.056	.042*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모형 1을 살펴보면, 시간관리 계획은 생활만족도 전체의 변량 13.5%를 설명하고 있으며, 시간관리 계획을 높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 전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3.988, p=.000^{***}$).

모형 2는 모형 1에서 시간관리 순서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형 1에 비해 9.3% 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간관리 순서($t=3.499, p=.001^{**}$)는 생활만족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관리 계획($t=.332, p=.74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서 시간계획 수행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형 3은 생활만족도 전체의 변량 32.5%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형 2에 비해 9.7% 더 설명하고 있는 결과이다. 시간관리 순서($t=2.796, p=.006^{**}$)와 시간계획 수행($t=3.779, p=.000^{***}$)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관리 계획($t=-1.495, p=.139$)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3에서 시간관리 만족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형 4는 자기만족도의 변량을 35.2%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형 3에 비해 2.7% 더 설명하고 있다. 시간관리 순서($t=2.862, p=.005^{**}$)와 시간계획 수행($t=2.901, p=.005^{**}$), 시간관리 만족($t=2.056, p=.042^*$)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관리 계획($t=-1.836, p=.069$)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시간계획 수행($\beta=.364$)이 자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시간관리 순서($\beta=.346$)가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다. 세 번째로는 시간관리 계획($\beta=.250$), 네 번째로는 시간관리 만족($\beta=.207$)의 순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영재학생들은 시간관리 행동을 잘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학습시간, 여유시간을 잘 구분하여 계획하고 행동하는 영재아들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잘 적응하여 생활한다는 결과이다. 요즘 영재학생들은 학교수업과 방과 후 수업, 영재수업과 그 밖의 사교육 학습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학생 영재 역시 아침에 등교하여 밤이 되어서야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의 학습수준에 맞게 계획하여 학습하고 여유시간을 확보하여 생활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여 메모하고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일반학생과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영재학생들의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점수가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그러나 중학교 영재학생의 경우 5점 만점에 3.25점, 일반학생의 경우 2.86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시간관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을 비교한 결과 영재학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학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간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의 비교한 여러 선행연구들(김외숙, Geistfeld, 2005; 남경애, 고선강, 2008; 서인주, 두경자, 2007; 오현진, 2006; 이원휘, 2000; 채화영, 2005)에서 여성의 시간관리 행동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학생은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영재학생들의 경우 시간관리 순서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일반학생에게 나타나는 성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성별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둘째,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영재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방수진(2012)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영재학생들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

고 생활하고 있다는 이초록(2011)의 연구결과로부터 생활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성별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중학교 일반학생 및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p<0.05$).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남경애, 고선강, 2008)에서 시간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된다.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간관리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p<0.05$). 즉 시간관리를 잘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중학교 영재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5점 만점에 3점을 약간 넘는 수준이므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시간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이 제기된다. 많은 영재학생들은 학교수업과 영재수업 이외에 부수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 시간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영재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관리하는 데 시간관리가 매우 필요하며 시간관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간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좋은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고 더불어 여가시간도 잘 활용하여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영재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계획하여 수행하는 습관을 잘 기른다면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져 교육에 대한 열의 또한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영재학생의 자기생활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시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영재학생들의 시간관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학생들의 시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영재교육에서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영재학생들의 생활만족도뿐 아니라 진로 및 목표 설정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재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영재학생들이 자기조절행동전략을 습득한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수란 (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2(1), 1-21.
 김경아 (2004). 시간관리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동일, 박경애, 김택호 (1995). **청소년 시간관리 연구: 프로그램 종합보고서.** 청소년 상담 연구 21.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명숙, 정대련, 이종희 (2003). 과학영재와 일반아의 창의적 사고, 인성, 환경과 과학영역의 창의적 수행에서의 성차. **아동학회지**, 24(3), 1-13.
- 김미경 (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미숙, 윤초희, 조석희 (2005). 우리나라 중학생 영재의 지적·정의적 특성: 일반학생과의 비교 및 학년과 성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6(3), 25-58.
- 김외숙, Geistfeld, L. (2005).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시간관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40, 487-500.
- 김은정 (2007). **남·여 과학 영재들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남경애 (2008). **청소년의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성취도,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학교 특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남경애, 고선강 (2008). 청소년의 생활관리행동과 생활만족도: 인문계고,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103-117.
- 박경애, 김택호 (1994). 청소년시간 및 정신에너지관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208.
- 박은정 (2007). **중학생의 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박은정, 김외숙 (2008). 중학생의 시간관리: 관련변수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41-55.
- 방수진 (2012). **초등 영재학급 학생이 지각하는 영재학급 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박현수 (2008). **초등학생의 시간관리 능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서인주, 두경자 (2007). 대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이 시간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21-131.
- 성유진 (1994). **취업주부의 시간갈등수준 및 시간관리전략과 가정관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오현진 (2006). **초등학생의 시간관리 능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윤용옥 (2007). **대학생의 시간관리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윤혜리 (1996).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과 심리적 복지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원희 (2002). **고등학생의 시간 관리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재호 (2012). **융합형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

16(1), 123-130.

- 이초록 (2011). **학부모 양육태도가 초등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정금미 (2003). **S.Covey의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정호순 (2009). **청소년의 시간관리 능력과 자기생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인과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조선미 (2011). 영재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 자기결정성, 학습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지능관 및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1(3), 611-630.
- 조성신, 여상인, 유미현 (2011). 영재학생의 일반학급 및 영재교육기관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영재교육연구**, 21(2), 465-484.
- 조은부, 백성혜 (2006). 초등과학 영재학급 학생들과 일반 학생의 인지적 특성 비교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6(3), 307-316.
- 채화영 (2005). **직장인의 시간관리 행동 유형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최수임 (1993). **체계적 접근을 통해 본 기혼 여교사의 시간갈등, 시간관리전략, 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통계청.
- 한기순, 신지은, 정현철, 최승언 (2002).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창의적인가? **한국지구과학회지**, 23(4), 324-333.
- 한순미 (2005). 지식사회에서 영재들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전략. **영재와 영재교육**, 4(1), 85-104.
- 홍성임 (2004). **중학생의 시간관리,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Britton, B.K., & Tesser, A. (1991). Effects of time management practices on college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405-410.
- Macan, T., Shahani, C., Dipboye, R., & Philips, A. (1990). College students' time management: Cor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str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760-768.
- Schmelzer, R. V., Schmelzer, C. D., Figler, R. A., & Brozo, W. G. (1987). Using 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to determine reasons for success and failur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8(3), 261-266.
- Treuman, M., & Hartley, J. (1996). A comparison between the time management skill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mature and traditional entry university students. *Higher Education*, 32(2), 199-215.

= Abstract =

Comparison of Time Management Behavior, Life Satisfaction between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Management Behaviors and Life Satisfaction

Sun-Mi Kim

Bansong Middle School

Mi-Hyun Yoo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ime management behaviors and life satisfaction of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the time management and the life satisfaction. For this study, 104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203 regular middle school students in Kyunggi Province were particip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ime management behaviors between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alyzing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showed that gifted students' time management behavio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general students'.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gifted students' time management behavior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general student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group and the gender did not appear.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ife satisfaction between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alyzing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showed that gifted students' lif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general students'.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both group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group and the gender did not appear. Third,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management behaviors and life satisfaction of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in both group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ime management behaviors on life satisfaction, and it showed that time management behavior affects significantly on life satisfaction.

Key Words: Gifted students, General students, Time management behaviors, Life satisfaction

1차 원고접수: 2013년 4월 27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6월 18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6월 18일